

환율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 봉근
〈 SK 업무팀장 〉

1. 머리말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최근 각종 보도자료에는 국내 기업의 환차손 부담을 우려하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96년 6월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달러환율은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신환매도율(TTS)이 마침내 910원대를 돌파하였고,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환차손 부담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표-1〉 '96. 5월 이후 환율변동 추이(TTS 기준)

(단위 : 원/\$)

'96. 5월말	6월말	12월말	'97. 6월말	9. 10 현재
791.0	813.8	847.5	891.6	912.0

정유사 원가중
85%를 차지하는
원유비는 달러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환율 급등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담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서, 국내 상장법인 전체로 '96년간 약 1조 7천억원, '97년 상반기에만 약 2조 3천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환율상승 추세는 외환시장의 달러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원재료에 대한 원화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제품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정유사는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변동으로 받게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국내유가는 금년부터 자유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국내 유가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정유사 Pricing 체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환율변동이 국내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가 자유화 이후 과거 국내 고시가격에 대한 정유사의 Pricing은 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의 국제제품가격 연동제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이 Pricing 체계가 정유사 원가를 베이스로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제품별 가격수준 및 예측가능성 면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러한 정유사 Pricing 방식에서의 환율변동에 의한 국내 유가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환율변동에 의한 석유제품 원가변동 요소

(1) 원유도입비용

정유사 원가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약 85%)하는 원유비는 달러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원유도입비용은 원유물품대, 원유도입운임, 보험료, 정부부과금 (관세, 수입부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비용은 모두 달러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비용 지불시의 환율에 의해 적절하게 산정된 원가를 국내 유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국내 유가 산정시에는 TTS환율의 전월실적평균 (정확하게 말하면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평균)을 당월 유가에 반영하고 있다.

(2) 원유도입 금융비용

정유사가 원유를 도입하는데 지불하는 금액은 그 규모가 막대한데, 이를 구입시점에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판매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정유사는 운영자금의 압박을 받

유전스 이자 비용도
달러화인 원유물품대에
대한 이자율 및
사용일수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게 된다. 따라서, 정유사는 원유수송기간, 제품생산기간, 국내수송기간, 재고보유기간, 외상매출기간 등 상당기간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도입시 유전스라는 연지급 금융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정유사의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거나, 국내차입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매월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도 막대한 금액을 정유사가 차입할 경우 국내 시중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제금리보다 배이상 높은 국내금리 부담으로 인해 유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정유사는 유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 정부가 가격관리체제하에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유가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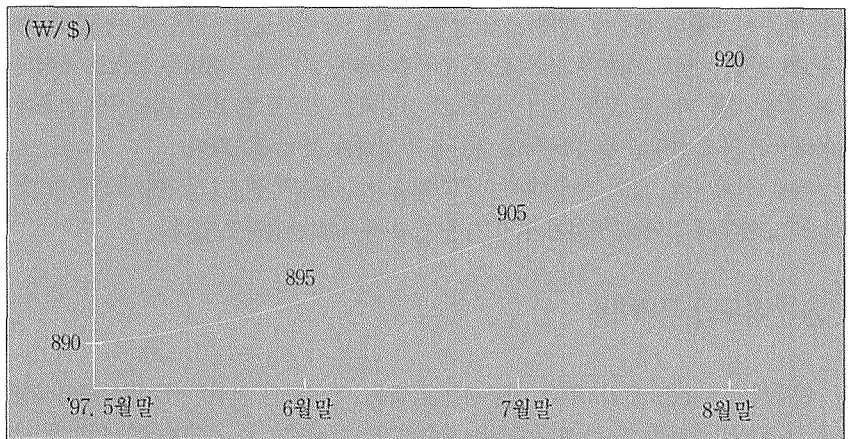
유전스에는 원유판매자가 제공하는 *Shipper's Usance*와 은행이 제공하는 *Banker's Usanc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유도입 금융비용이라 함은 *Banker's Usance* 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을 말한다.

유전스 이자비용도 결국 달러화인 원유물품대에 대한 이자율 및 사용일수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도 원유도입 비용 산정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유가에 반영하고 있다.

(3) 환차손익

정유사 비용에 있어 환차손익은 유전스사용 및 외화차입금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그림-1〉 최근 환율금등시



원유 구입시점과
대금 결제시점간의
환율 차이는
유전스환차손을
발생시키고
이는
기준에 의해
국내유가에
반영되어 진다

〈표-2〉 국내 소비자가격 영향

	국내유가 변동율
최근 1개월간 환율 변동폭 기준(A)	+3.5%
최근 3개월간 환율 변동폭 기준(B)	+2.4%
차 이(B-A)	△1.1%

(주) 1. '97. 9월 유가반영 국제가격 기준
2. 환차 0 대비 변동율임

따라, 정유사의 환차손익은 유전스 사용에 의한 환차손익과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처리상 원유구입시점의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된 원유 도입비가 계상되지만 실제 정유사가 지불하는 원유 도입비는 유전스 사용후 대금 결제시의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원유 구입시점과 대금 결제시점의 환율차이에 의해 원유도입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규모가 막대하여 유가에 반영되어 유가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할 경우 정유사는 이 유전스 환차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국내 유가에 즉시, 전액 반영하게 될 경우 급격한 국내유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현행 가격산정방식은 이를 완화시켜 주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유전스 환차손익을 유가에 반영하는 기본방식은 원유 구입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 원유비와 유전스 사용후 은행에 대금결제시 적용되는 환율에 의한 원화원유비와의 차이를 산정/반영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환율 급등폭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의 국내유가 급등을 방지하고자 최근 3개월간의 환율변동폭을 기준으로 한 환차손을 유가에 반영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월 25일의 환율과 전전전전월 25일의 환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1일 환율 변동폭을 산정, 총 유전스 사용일수를 적용하여 당월 유가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2개월간에 비해, 최근 1개월간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환율 변동폭을 기준으로 한 방식과 최근 3개월간의 환율변동폭을 기준으로 한 방식에는 국내 유가 영향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그림-1 표-2 참조〉

이와 같이, 현행 유가산정 방식상의 유전스 환차손 반영방식은 최근의 환율급등에 의한 유가인상요인을 완화시켜 주면서 환차손 회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유사는 시설 신·증설에 따른 막대한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그 일부를 외

정유사는 유전스 환차손을 국내 유가에 즉시 반영하게 될 경우 급격한 국내유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환율변동폭을 기준으로 한 환차손을 유가에 반영하고 있다

국으로부터 장기차입 형태로 도입하게 되는데, 환율의 변동에 의해 이 장기차입금의 원화표시 금액도 변동하게 된다. 이를 외화차입금 환차손익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집중적인 정유사 시설 신·증설에 의해 현재 그에 따른 외화차입금 환차손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 인상을 우려, 유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로 인한 손익은 정유사가 부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유가반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3.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유가 변동효과

이상과 같이,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국내 유가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 아래에서는 실제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국내 유가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실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평균환율 변동에 의한 국내유가 변동효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평균환율이 변동되면 달러 기준의 정유사 비용항목들은 모두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월의 국제 원유가격 수준, 국제제품의 유종별 상대가격구조 등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환율 변동시 향후 유가를 추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휘발유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그 효과를 산정해 보았다 (등유, 경유의 경우도 거의 같은 효과가 발생함)

<표-3> 평균환율 변동에 따른 평균 국내유가 변동효과

평균환율변동폭(W/\$)		+5	+10	+15	+20	+25	+30
국내소비자가격 변동효과	휘발유(W/l)	+1	+2	+3	+4	+5	+6
	평균 변동율	+0.3%	+0.5%	+0.8%	+1.1%	+1.3%	+1.6%

(주) 97년 9월 국내가격에 반영된 국제가격 기준임.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환율이 5W\$ 씩 변동될 경우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원씩, 유종평균으로는 0.3% 정도의 변동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환차손익 변동에 의한 국내유가 변동효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 구입시점과 대금 결제시점간의 환율 차이는 유전스

현재 국내석유제품
가격은 매월
국제원유/ 제품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해
그 등락이 결정되어
소비자들은
향후 유가등락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환차손을 발생시키고 이는 상술한 기준에 의해 국내유가에 반영되어 진다. 환차변동에 의한 국내유가 변동효과는 아래와 같다.

〈표-4〉 환차 변동에 따른 평균 국내유가 변동효과

환차 변동폭(W/\$)		+5	+10	+15	+20	+25	+30
국내소비자가격	휘발유(W/l)	+1	+3	+5	+6	+8	+10
변동효과	평균 변동율	+0.4%	+0.8%	+1.2%	+1.6%	+2.0%	+2.4%

표에서 보듯이, 유가반영 기준의 환차가 5W/\$ 씩 변동될 경우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1~2원 정도씩, 유종평균으로는 0.4% 정도씩 변동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환율변동 효과에 있어, 보통 평균환율과 환차는 다른 폭으로 변동되고, 국내 유가는 두가지 변수의 복합효과로 변동되게 된다. 이 경우 두가지 변수에 의한 복합적인 국내유가 변동효과는 각각의 효과를 더해서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익월 유가반영 기준의 평균환율이 전월대비 5W/\$ 인상되고, 환차는 10W/\$ 인상될 것이 예상된다면, 환율인상으로 인해 익월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3원 (1원+2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유종평균으로는 1.1%(0.3%+0.8%)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4. 맺는말

과거 정부가 가격을 고시하여 국내유가를 관리하던 시대를 지나, 금년부터 유가자유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정유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국내유가 산정기준으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매월 국제원유/제품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해 그 등락이 결정되어지므로, 이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향후 유가등락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설명한 환율변동에 의한 국내유가 변동효과가 소비자의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정유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국내유가 산정기준으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